

●●● Mr. Neal Scanlon 아비아젠 아시아지역 기술담당

변화되는 사양기술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24일 세계적인 육종회사 아비아젠그룹 사육기술 담당인 Mr. Neal Scanlon이 한국을 방문해 '종계 사양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Neal Scanlon씨를 만나 세계적인 육종의 흐름과 종계 사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Neal Scanlon 아비아젠 아시아 기술담당

▶ 한국 방문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닭 육종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육종기술에 맞춰 종계의 사양관리 기술도 이에 부합되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양기술을 보급할 목적으로 방한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아비아젠 그룹에서 아바이커 품종을 한국에 보급시킬 목적으로 방문한 이후 1년에 4~5차례 기술 자문을 하기 위해 방한하고 있습니다.

▶ 닭과의 인연은?

저는 본래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2년 아비아젠 그룹에 공채로 입사 한 후 아비아젠 그룹에서 생산되는 종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분야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기술 기법과 생물학을 응용하면서 육종사업에도 발전을 기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양계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지역에서 아비아젠그룹의 아시아 기술담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세계 육종방향과 사육기술은?

수십년 전만해도 닭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기준은 단지 체중에만 국한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료효율, 종란, 부화율, 생산성, 육질, 가슴살, 성장, 골격충실도 등 다양한 기준을 선정하여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닭의 육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점등자극이 과거에는 19주령에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21주령까지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과거에 적용하던 사양기술 방식으로는 현재의 품종에 맞는 사양관리가 힘듭니다. 따라서 농가는 변화되는 사양기술을 숙지하여 현장에 적용해야 만이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닭 일생중 사양관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닭의 전체 일생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꼽으라면 육성기를 들겠습니다. 이때 모든 닭의 일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종계 1마리가 몇 개씩의 종란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키우면 그 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때에는 초이 사료를 하루에 자주 나누어 줌으로써 병아리의 좋은 출발을 돕고 정상적인 골격형성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체중측정은 2~3주부터 시작하고 이때부터 매주 실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료량은 에너지 및 단백질 수준과 사료원료의 품질에 따라 달리하되 표준체중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3주령 전에 약추, 중추,



▲사양가를 찾아다니며, 종계 사양기술을 보급시키고 있는 Neal Scanlon씨

강추를 선발하여 나누어 사육하는 것은 계군의 균일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시아 지역의 아바에이커 분포는?

아시아 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아바에이커는 전체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전체 수출물량의 5%를 차지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회사인 한국원종의 GP 시설과 확충된 부화시설을 통해 종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으로의 보급이 가장 많고 호주,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에 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 향후 일정은?

앞서 말했듯이 저는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올바른 사양기술을 보급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비아젠은 각 품종들마다 특성에 맞는 사양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피드백 형식으로 사양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종계 시설이 나은 편이라 어려움이 덜 따르는 편이지만 파키스탄 등 시설이 열악한 곳은 보다 세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디비킹, 백신접종기술 등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고객들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